



먼나무



최 명 섭
임업연구원

겨울산야를 붉게 물들이는 낙상홍, 산사나무, 팔배나무, 마가목등이 「겨울열매꽃나무」라고 한다면 먼나무는 「봄의 열매꽃나무」라 할 수 있다. 가을에 달리기 시작하는 열매가 새봄 들어 더욱 붉게 익어가기 때문이다.

이 나무는 암수 짝 그루로

열매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암 나무를 골라 식재하거나 암 나무를 접목 번식하여 식재하는 것이 좋다.

제주도 전역에 이 나무가 자라고 있으나 특히 서귀포 시청 마당에 있는 먼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정평이 나있다. 영국의 저명한 식물학자 「실리어 박사」는 지난 80년 서귀포 시청마당에 서 있는 이 나무를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본적이 없다고 원더풀을 연발, 진가를 더욱 인정받게 됐다.

먼나무의 수피는 청결하고 고귀한 느낌을 주어 다른 나무 사이에서도 회백색 혹은 검은



과명:감탕나무과
학명:Ilex rotunda
영명:Kurogane Hilly
한명:黑金
일명:くろ가네もち



서귀포시청내의 먼나무

색의 페인트칠을 한 듯한 이 나무의 수피를 제주의 방언인 검은 나무라는 뜻으로 멩나무가 먼나무로 접잠게 표현 된 듯하다.

나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를 곁에 두고 이 나무가 먼 나무(어떤 수종이냐)라고 물으면 먼나무라고 대답하여 주변 사람들을 웃기곤 한다.

1. 생태적 특성

제주도, 완도군 보길도의 표고 700m이하에서 자생하고 지리적으로는 중국, 일본에 분포하는 상록활엽교목으로 수고 10m까지 자란다. 내한성이 약하여 내륙지방에서 월동은 불가하고 음지나 양지에서 모두 잘 자라는 중용수이며 건조에는 약하여 토양수분이 적당한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양호한 생장을 보인다. 내조성은 강하여 해변가에서도 피해가 없으며 대기오염에 강하여 도심지에서도 식재할 수 있다.

2. 형태적 특성

줄기는 직립하여 원추형의 수형을 만들며 수피는 회백색 혹은 검은색으로 평활하고 어린 가지는 암갈색이다. 잎은 호생하고 혁질이며 길이 4~11cm, 넓이 3~4cm의 타원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잎이 마르면 녹색으로 변하며 잎자루는 길이 12~28cm이다. 꽃은 자웅이화로 암나무 수나무가 따

로 있으며 새가지에서 액생하는 잎보다 짧은 취산화서에 달리고 5~6월에 연한 자주색으로 피며 지름은 4mm정도이다. 꽃받침과 꽃잎은 각각 4~5개이며 꽃잎은 꽃받침보다 길고 뒤로 젖혀지며 수술이 4~5개로 수꽃에서는 크지만 암꽃에서는 작아진다. 열매는 둥글며 지름 5~8mm이고 9월에 붉은색으로 익는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다른 나무들이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9월부터 달리는 지름 5~8mm의 정도의 이 열매는 엄동설한(嚴冬雪寒) 강추위속에 붉게 익어 3월에 접어들면서 더욱 진한 진홍색으로 물든다. 새순이 돌아나는 5월까지 나무 전체를 뒤덮으며 익어가는 모습은 멀리서 보면 흡사 붉은 봄꽃이 만개한 것으로 보이고 열매는 꽃보다 관상기간이 길 뿐 아니라 결실의 풍요로운 안정감을 주어 잊었던 고향을 생각하게 해준다. 특히 이 열매는 새들의 좋은 먹이가 돼 가을부터 봄까지 온갖 새들을 불러들여 도시에서도 정서적인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새움이 돋자마자 피기 시작하는 자주빛 꽃도 아름답기 짝이 없어 조경수로 활용하기에 매우 훌륭한 수종이다.

내한성이 약하여 내륙지방에서는 월동이 불가능한 것이 흠

이지만 음지나 양지에서 모두 잘 자라는 중용수이며 토양수분이 적당하고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생장이 양호하고 내조성과 대기오염에 강하여 해변가나 도심지에 식재하여도 잘 자라므로 난대지역에 해당하는 남쪽지방의 공원이나 정원, 가로수로 식재하기에 적당한 좋은 수종이다.

4. 번식법

번식은 종자로 하거나 꺾꽂이 2방법이 있는데 종자번식은 3~5월에 열매를 채취하여 과육을 제거한 후 바로 직파하거나 모래와 섞어 다음해 파종시까지 노천매장하여 파종하면 많은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데 암수 단그루이기 때문에 접목을 하여야만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생산할 수가 있다.

삼목은 안개시설이 갖추어진 온실에서 그해 자란 가지를 7~8월에 꺾꽂이하면 많은 묘목을 얻을 수 있다.

5. 그 밖의 용도

늦가을부터 익어가는 붉은 열매가 아름답고 광택이 있는 잎이 고와서 꽃꽂이 소재로 사용하며, 한방에서는 먼나무의 수피나 뿌리껍질을 구필용(救必應)이라 하여 해독이나 청열, 지통, 지혈등에 다른약재와 혼용하거나 타박상, 화상에 짓뭇어서 피 바르거나 바싹 졸여서 바르기도 한다.